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가?

학과:소방안전학부 학번:202211771 이름:박제민

1.서론

글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범죄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시작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범죄자란 범죄 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 한다.

가면 갈수록 이러한 “범죄자”의 수가 2020년 기준 163만8,367명으로 많은 상황이고 범죄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가?”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다. mbc 실화 탐사대 방송 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방송이 잘했다”, “아동 성범죄는 무조건 공개했으면 좋겠다”, “사람이여야 인권존중이다”, “범죄자여도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 “지금 얼굴을 보고 싶다”, “얼굴 공개하면 안된다. 범죄자는 법이 심판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각각 다양한 이유로 범죄자 인권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의 결론은 반대측이었다. 그래서 이글에서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쪽에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2.본론(1)

서론에서 이야기 한거처럼 나는 반대측 의견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범죄자”와 “중범죄자”처럼 각각 범죄자의 형량도 다르고 이유가 다르겠지만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일단 똑같이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강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우리 나라는 범죄자에게 교육과 재사회화를 진행하고 흉악범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주고 수갑 찬 손을 가려 주는 등 범죄자에게 많은 인권을 챙겨주는 나라이다.

>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높아지면서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관리 하기 힘들어졌고 폭행과 폭언 심지어 2004년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되려 수감자가 교도관을 고소 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1)]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범죄자가 아닌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위법 행위를

---

1) 김소영 “범죄자 인권 높아져 교도소에서 죄수한테 맞고 고소당하는 한국의 교도관들”<인사이트> 2021.6.14. 수정.2022.11.27. 방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741563&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가?
지금 우리나라와 법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범죄자”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백날 노력해도 그들은 더 많은 인권 보호를 호소 할 뿐이라고, 나라는 범죄자에게 일자리를 주며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노력해야 할 것은 그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피해자와 폭언과 욕설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도관등 선량한 시민들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죄 없는 시민들을 생각하여 더 다양한 복지방안과 피해자 인권 보호와 재기를 위하여 더 신경쓰고 노력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 한다.

3.본론(2)

나라에서는 전자발찌,성범죄자 알림e등 시민 보호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명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는 분명 존재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그 중

> 송파 전자 발찌 훼손 연속 살인 사건의 범인 강윤성의 사례를 보면 강윤성은 전자 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또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한명을 더 살해하였다. 이처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살인범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두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다[2)]

는 사실을 나라는 인지해야 하며 또한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방안과 시스템은 완벽한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위에 이야기한 제 2의 강윤성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범좌자들을 챙기는 인권의 비중을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흉악범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을 재정하고 또 검토해야 하며 전자발찌를 강화하거나 더 새로운 방법으로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 본론(3)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한 측 의견에 대한 반론을 해보려고 한다. 모든 인간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라고 제일 먼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나의 생각은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인권을 존중 해준다면 지금처럼 인권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이 재범을 일으킬 것이며 대표적인 사례 촉법소년을 봐도 그 법을 역이용 하여 어린 나이부터 많고 감당할 수 없는

---

2)조각창 “전자발찌 그놈 강윤성, 범죄자만 위한 인권 문제있다.”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2021.9.2. 수정, 2022.11.27. 방문 https://impossibleproject.tistory.com/6034

범죄들을 저지른다.
물론 그 법으로 구제를 받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촉법소년이 이슈가 되는 만큼 좋은 사례보단 좋지 않은 사례인 것이 사실이다. 내가 이 사례로 하고 싶은 말은 본론에서 이야기 했듯이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범죄자 재발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을 할 것 같다.

5.결론

일단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형법”은 실존법으로써 사회 규율을 지키고 사회 구조를 안정적으로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을수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무죄 추정 원칙과 같은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본론에서 이야기한 강윤성, 교도관 사례처럼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예방해야 하며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더 이상 많은 인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범죄자들에게 더 강한 처벌과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한다.